

새행장 선임 지연... 민영화 앞둔 광주銀 경영공백

2개월 가까이 늦어져 기업가치 하락 노조·경제계 “내부승진자 선임 시급”

광주은행 새 행장에 대한 선임이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광주은행 민영화를 앞두고 내부 경영공백과 기업가치 하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광주은행 노조를 비롯한 지역 경제계와 상공인, 시민단체들은 조속히 내부승진자를 새 행장으로 선임해 민영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데 목소리를 내고 있다.

광주은행과 지역경제계에 따르면 광주은행은 지난 6월 10일 송기진 행장이 사의를 표명함에 이어 정부의 분리매각 방침이 공식화되면서 새 행장 선임이 곧바로 이어질 것으로 관측됐지만 2개월 가까이 늦어지고 있다.

광주은행행장후보추천위원회는 7월 19일 서류 심사를 통해 12명의 후보 가운데 5명의 후보로 압축한 뒤 우리금융지주 경영전략회의가 열린 7월 27일 전에 행장후보가 내정 될 것으로 전망했으나 새 행장 선임은 이뤄지지 않았다.

광주은행의 새 행장 선임이 늦춰짐에 따라 광주은행은 하반기 인사와 경영전략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어 업무 공백에 따른 기업가치 하락을 염려하고 있다.

현재 광주은행은 CEO 공백상태에서 매각절차가 진행 중이다. 예금 보험공사는 7월 15일 광주은행에 대한 매각공고를 내고 우리금융지주 매각절차에 착수했으며 오는 9월 23일까지 예비 입찰 서류를 받아 오는 11월 본입찰과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해 12월이면 새주인을 정할 방침이다. 이처럼 광주은행은 민영화 일정 로드맵에 따라 민영화가 진행 중이다.

따라서 광주은행 노조를 비롯한 지역경제계와 상공인, 시민단체들은 조직의 안정과 지역의 정서를 아우르면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내부승진자'를 새행장에 조속히 선임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지역 상공인은 “광주은행 민영화 일정에 따라 3~4개월 후면 우리 금융으로부터 광주은행은 완전 분리가 이뤄지는데 우리금융그룹 출신 CEO를 선임해야 할 이유가 없다”며 “더구나 지역여론이 한 목소리로 반대하는 상황에서 ‘낙하산 인사’가 이뤄진다면 강한 반대에 부딪쳐 민영화는 표류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역경제계 인사는 “광주은행 새행장에는 조직장악력이 높고



KJB광주은행은 지난 2일 본점 3층 대강당에서 송기진 은행장과 임원, 부점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3년 하반기 경영전략회의를 개최했다. (광주은행 제공)

지역정서를 잘알고 설득할 수 있는 내부승진자가 적임자다”며 “그동안 지역에서 함께 호흡하며 축적된 신뢰와 인적네트워크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은행 노동조합은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업무 공백최소화와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민영화 달성을 위해 광주은행 출신 최고경영자(CEO) 선임을 조속하게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광주은행 노조는 “지난 6월 28일 후보자 공모 마감 후 한 달여가 지나도록 면접 일정조차 잡지 못하는 것은 인사검증에 따른 지연이라기보다는 이순우 회장의 인사 개입에 따른 사육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는 지역정서에 반하고 조직문화를 훼손하며 민영화에 역행하

는 우리은행 출신의 낙하산 CEO 선임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광주은행 출신의 CEO가 선임돼야 정부와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민영화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며 “만약 ‘낙하산 인사’가 선임된다면 강력한 선임저지 투쟁을 전개하고 민영화 또한 물거품이 될 것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오바마 정부도 결국 애플 편들기 ITC 스마트폰 제품 수입 금지 결정 거부권 행사

미국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3일(현지시간) 애플의 구형 스마트폰 제품 등에 대해 수입을 금지한 국제무역위원회(ITC)의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마이크 프로먼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어빙 윌리엄슨 ITC 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무역정책실 무협의회(TPSC), 무역정책검토그룹(TPRG), 관련 당국 및 당사자들과의 심도 있는 협의를 거친 결과 ITC의 수입금지 결정을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프로먼 대표는 그러면서 “이번 결정은 미국 경제의 경쟁 여건에 미칠 영향과 미국 소비자들에게 미칠 영향 등 다양한 정책적 고려에 대한 검토 내용을 기반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조사법적 독립기구인 ITC의 권고를 거부한 데 대한 부담을 고려한 듯 “이번 정책결정은 ITC의 결정이나 분석에 대한 동의나 비판은 아니다”면서 “또 특히 보류권자가 구제방법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법원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인 무역대표부의 이날 결정에 따라 애플은 아이폰4, 아이폰2 등 중국에서 생산되는 구형 스마트폰과 태블릿PC 제품을 계속 미국으로 수입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는 “애플이 우리 특허를 침해하고 라이선스 협상에 성실히 임하지 않았음을 인정한 ITC의 최종 판결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연합뉴스



기아자동차 K9·현대차 싼타페 중동지역 ‘올해의 차’ 연속 선정

현대·기아자동차의 K9(사진)과 싼타페가 중동 지역에서 올해의 차에 연속 선정됐다.

4일 현대·기아차에 따르면 기아차 대표 플래그십 모델 K9은 중동 지역 유력 자동차 전문지 ‘사우디 오토매거진’(Saudi Auto Magazine)이 최근 발표한 ‘2013 올해의 차’(2013 Car of the year)에 최종 선정됐다.

지난해 말부터 중동 시장에 본격 판매되기 시작한 K9은 이번 평가에서 고급스러운 디자인 및 편의 사양이 특히 높은 점수를 받아 유수의 경쟁 차종들을 모두 제쳤다. 특히 올해 1월 아랍에미리트의 대표 자동차 전문지 ‘휠스 매거진’(Wheels Magazine)이 발표한 ‘올해의 대형 세단’에도 선정된 바 있어 중동 지역에서 최고의 상품성을 잇달아 인정받았다.

현대차 싼타페는 오만의 최대 자동차 전문지 ‘오토만 매거진’(Automan Magazine)이 최근 발표한 ‘2012 올해

의 SUV’(Automan Best SUV of the year 2012)에 선정되며 중동 고급 SUV 판매 확대에 본격 나섰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중동 지역은 강력한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최근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신흥시장 중 하나”라며 “고급차 판매 비중을 높여 브랜드 고급화를 통한 내실 있는 성장을 달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4	20 26 28 35 40	31
등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 일치	1,888,069,286
2	5개 숫자 + 보너스 숫자 일치	51,226,687
3	5개 숫자 일치	1,465,568
4	4개 숫자 일치	50,000
5	3개 숫자 일치	5,000

수익악화 은행권 점포 80곳 없앤다

2분기 순이익 48% 줄어...인력 구조조정도 예고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실적 악화에 시달리는 은행들이 하반기에만 점포 80여곳을 폐쇄하기로 했다.

은행은 보통 점포당 10명 이상 근무하는 만큼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최근 금융감독원에 이력 내용의 적자·저생산 점포 정리계획을 제출했다.

하나은행은 적자와 성장 정체에 직면한 점포 25곳을 폐쇄하기로 했다. 3개 점포는 지점에서 출장소로 규모를 줄일 계획이다.

농협은행은 4개 점포를 폐쇄해 옹기 1개는 아예 없애기로 했다. 8개 점포는 연말 결산 결과에 따른 조건부 폐쇄 방침을 정했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적

자를 낸 51개 점포 가운데 최근 3년 내 신설한 곳을 제외하고 11개 점포를 통폐합 또는 재배치할 방침이다.

우리은행은 적자점포 3개와 저효율점포 5개 등 9개 점포를 통폐합한다. 국민은행은 12개 점포, 우리은행은 8개 점포를 정리하겠다고 금융권에 보고했다.

한국씨티은행은 상반기에 15개 점포를 없앤 데 이어 하반기에 5개 점포를 추가 정리한다. 신한은행도 상반기에 14개 점포를 없앴다.

은행들이 이처럼 일제히 적자점포 정리에 나선 이유는 수익성이 확연하게 나빠졌기 때문이다.

올해 2분기 국내 은행의 순이익은 1조1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조1천억원보다 1조원(48.0%)이나

줄었다.

KB·신한·우리·하나 등 '4대 금융지주'의 상반기 순이익은 2조5천262억원으로, 지난해 5조1천179억원에 견줘 정확히 반토막이 났다.

은행은 점포를 1개 줄이면 연간 약 3억~5억원의 비용을 아낄 수 있다.

한 시중은행은 강남지역 모 지점 1개를 없애면 임차보증금 42억원의 기회비용과 월 임차료 1900만원, 관리비 1500만원 등 총 5억3600만원이 절감된다고 전했다.

다만, 이 정도 규모의 비용 절감이 은행 수익성을 높이는 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은행 비용의 대부분은 인건비”라며 “인력 구조조정이나 임금 삭감이 없는 한 수익성을 높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건축물 안전관리 예치금 대상 확대

5000㎡서 1천㎡ 이상으로...건축 재심의 신청 쉽게

앞으로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때는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을 맡겨줘야 한다. 또 건축위원회 건축 심의 회의록이 일반에 공개돼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근 공사가 장기간 중단되는 ‘방치 건축물’이 증가함에 따라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은 착공신고를 할 때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을 맡기도록 했다.

안전관리 예치금은 건축 공사비의 1% 범위부터 지금까지는 연면적 5000㎡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했다.

개정안은 또 지금까지 건축위원회 건축심의 결과에 공개되지 않아 민

원인이 불만이 있어도 이의제기도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심의 회의록을 공개해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위법 사항이 있는 비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위반을 시정하지 않으면 허가권자가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을 가중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건축물에서 얻는 경제적 이익이 커 이의강제금만 납부하고 장기간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며 “앞으로 위반 건축물의 위법사항이 빨리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군·구에는 ‘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해 집주인이 주택을 정비하거나 수선할 때 점검·보수에 대한 기술과 정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자연산 참을 직접달여 만든 14년 전통

참^우 보양식전문점

삼계탕 전문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착한 가격”

참우 음식 토종 참우닭 / 우 청동오리 / 우 삼계탕

한방 음식 한방 백숙 / 한방 청동오리 / 춘담백숙 삼계탕

토종참우닭 (오리, 식자, 술포함) **40,000원**

춘담백숙 **38,000원**

우의 효능 위염, 위궤양 효과 / 과음 및 숙취해소 / 장부실 개선 및 어혈 제거/항암작용, 암세포 성장 억제 / 원기회복 속이 냉하거나 손발이 찬데

함양우닭 062)515-5757(우칠우칠)

광주광역시 북구 유동 9-3 해피뷰병원 뒤(구,삼성병원), 수창초교 후문 건너편

전역세대 분양중

지리산 노블랜드

산 좋고 물 좋은 백운산 400고지

콘도/펜션/별장/요양시설
귀농자, 요양자 10%할인
국유지 필요평수 임대 가능 (산삼, 약초, 산나물, 텃밭 사용)
화개장터, 썰매사, 화염사, 노고단 근접

분양가격(공유면적 포함)	대출가능금액
18평(28실) 6840만원	18평 3000만원 가능
28평(26실) 1억 640만원	28평 5000만원 가능
56평(1실) 2억 1280만원	56평 1억원 가능

등기이전 및 상담 - 김주현 법무사
H. 010-4451-6686 / 법무사 직접상담

지리산노블랜드분양 / 구례군 간전면 윤천리
직통 : 010-3605-5000 / (주)오천경매